# 말 수송 가이드라인

**(최초 제정 : 2025년 10월)**

말의 수송은 말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며,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마사회가 제정한 말 복지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기초하여 수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부상을 최소화하고, 말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말관계자와 말 수송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1. **(말 수송자의 준수사항)** 말 수송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말 수송에 소요되는 총시간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화시킨다.

나. 말 수송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말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다. 수송에 적합한 말을 선별하여 수송한다.

라. 수송에 적합한 차량을 이용하여 말을 수송한다.

마. 말의 이동, 상·하차 및 운송과정에 말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바. 수송 전에 기상조건 및 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수송에 적합한 말 선발)** 말 수송자는 수송에 적합한 말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출발 전에 수송하려는 말의 상태를 확인하며, 수송 중에는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한다.

나. 질병, 부상 또는 기력쇠약으로 인하여 수송에 적합하지 않은 말을 수송해서는 아니 된다. 단, 수송 거리가 짧고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수의사의 감독 하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수송은 가능하다.

다. 씨수말, 공격적인 말, 서로에게 적대적인 말들은 분리해서 다루어야 하며, 격리해서 수송한다.

라. 씨암말은 임신기간의 90%가 넘은 경우에는 수송해서는 아니 된다. 단, 어미와 자마의 말 복지 증진을 위한 출산 전·후의 단거리 수송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마. 여러 마리의 말을 수송하는 경우 편자를 제거할 것을 권장한다.

바. 모마와 자마를 함께 수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체별로 각각의 수송칸에 태워 수송한다.

사. 어린 망아지와 성마(모마가 아닌 말)는 동일구획 내에 함께 수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자연포유 중인 자마는 어미와 함께 운송하며 자마가 바닥에 누울 수 있어야 한다.

아. 자마는 8시간 이상 수송이 어려울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말을 내려서 물과 사료를 급여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준다.

자. 갓 태어난 자마는 배꼽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수송해서는 아니 된다. 단, 수송 거리가 짧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수송은 가능하다.

차. 순치가 되지 않은 말을 제외하고 8개월령 이상의 모든 말은 수송 중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 단,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예외로 한다.

카. 말의 수송 전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사료와 물을 적절하게 공급한다.

① 장거리 수송시에는 수송 중 발생 할 수 있는 산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송차량에 상차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절식을 한다. 다만, 공복시간은 18시간 이상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말이 수송차량으로 상차되기 전까지 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③ 말이 수송차량에 상차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과 사료를 급여하였던 시간을 확인하여 추가 급여 계획을 세운다.

3. **(말 수송차량 설비 및 환경조건)** 말을 수송하는 차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한다.

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여야 하며 상차 이전, 하차 이후에 차량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나. 상·하차 및 수송 중에 말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수송차량에는 날카로운 부위나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다.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말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가림막을 설치하며, 적절하게 유지 및 보수를 실시한다.

라. 트레일러나 컨테이너의 환기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차량 엔진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가 유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마. 수송 차량의 문과 칸막이는 말이 부상 위험성 없이 쉽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충분히 넓어야 한다.

바. 수송 차량은 말의 상·하차가 편리해야 하며, 경사로의 각도는 20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경사로의 각도가 10도 이상이라면 바닥 재질은 미끄럽지 않아야한다.

사. 8시간을 초과하여 말을 수송하는 경우, 말의 특징, 수송시간, 날씨 등을 고려하여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깔짚(베딩) 또는 유사한 물질을 바닥에 깔아야 한다.

아. 수송 중인 말의 기갑(withers) 위로 최소 75cm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자. 말의 체중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견고해야 하며, 말이 수송 중 선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면적이 필요하다.

**< 말 수송 시 최소 필요 면적>**

| 말의 종류 | 최소 면적 | 비고 |
|---|---|---|
| 성마 | 1.75㎡(0.7m×2.5m) | - |
| 어린말(6~24개월령) | 1.2㎡(0.6m×2m) | 48시간 미만 수송 |
| | 2.4㎡(1.2m×2m) | 48시간 초과 수송 |
| 포니 | 1㎡(0.6m×1.8m) | - |
| 자마(0~6개월) | 1.4㎡(1m×1.4m) | 어미말과 따로 수송 |

## 4. (말 수송 시 준수사항)

가. 말 수송자는 말 수송 전 차량의 안전상태, 세척・소독 상태, 운송 소요 시간, 적정 소요 면적, 휴식, 사료, 물, 온도・환기 조건, 수송 중의 말 상태 관찰, 질병관리 및 비상대책 등 말과 차량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뒤 수송을 개시한다.

나. 말 수송자는 말의 수송 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온도나 기상 조건 등에 의해 말에게 스트레스나 고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환기 상태를 조절하는 등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

② 말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급출발과 급정거를 하지 않으며, 모퉁이 길은 부드럽게 돌아야 한다.

③ 말의 수송 과정에서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줄이기 위하여 다른 말 수송자 또는 말과의 접촉을 피한다.

④ 장거리 수송 중 필요한 경우, 물과 사료를 적절히 급여하고 적정한 간격으로 휴식을 제공한다.

## 5. (말의 상・하차 등)

가. 말을 상・하차 시킬 경우에 말 수송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말의 부상, 고통, 흥분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말을 이동시킨다.

② 말의 이동을 재촉하기 위하여 이동보조기구 등을 이용할 경우, 말 몰이 판 또는 말 몰이용 깃발 등 말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는 도구를 이용한다.

③ 말을 상・하차하는 장소는 말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명을 갖추어야 한다.

④ 말의 부상, 통증,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하여 조용한 환경에서 인내심을 갖고 다뤄야 하며, 말을 수송차량에 싣고 내릴 때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아니 된다.

⑤ 말이 상하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말의 흥분으로 인한 돌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처방하에 진정제를 투약할 수 있다.

⑥ 어미말과 자마가 함께 이동하는 경우 간격이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 이내로 유지한다.

⑦ 말의 수송 중에는 주기적으로 말의 상태를 점검한다.

⑧ 말의 하차 후 말의 상태를 즉시 점검한다.

⑨ 상·하차 도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 또는 장애를 입게 된 말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하며, 예후가 불량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인도적인 방법으로 조치한다.

⑩ 하차작업 종료 후 수송차량의 내부는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나. 말의 상·하차 시 말의 이동을 재촉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 및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행위

② 쇠 또는 나무 등 파이프나 몽둥이 등의 사용

③ 사람의 손·발을 이용하여 구타하는 행위

④ 불필요한 고함 또는 큰소리를 내어 이동시키는 행위

⑤ 기타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6. **(기본원칙 준수)** 상기 외 ‘말 수송’에 대한 일반적인 말 복지 기본원칙은 「한국마사회 말 복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이 가이드라인은 ‘말 수송’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존중하는 권고안으로 한국마사회 말복지협의체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다.**